

1950~6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 『여원』에 나타난 간통의 담론화를 중심으로

임은희*

차례

1. 서론
2. 공적영역에 나타난 여성의 탈근대적 의지
 - 2.1. '계'를 통한 경제참여-‘마담뱅크’ 출현
 - 2.2. 남녀 정결교육-육체 해방과 ‘아푸레 걸’ ‘신생부인족’ 탄생
3. 사적영역에 나타난 여성의 탈근대적 의지
 - 3.1. 현실적 모성-‘이성적 모성에’ ‘신현모’
 - 3.2. 여성의 육체적 쾌락-현모/요부를 겸비한 양가적 아내, ‘신양처’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의는 『여원』을 통해 간통의 담론화가 남성 가부장제와 착종되어 여성의 성을 배제하는 방식을 살필 것이다. 그러나 권력으로 여성을 타자화하는 과정 속에는 남성 주체의 균열된 지점이 필연적으로 노출되기 마련이다. 본 논의는 이러한 지점을 포착하여 역으로 여성의 전복의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여원』은 당시 여성문제를 공론화했던 대표적 잡지이며, 현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첫 잡지로 평가되고 있다. 담론에는 권력관계와 주체성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어, 『여원』은 섹슈얼리티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

* 한양대 국문학과 강사

다. 섹슈얼리티는 관계성을 매개로 성립하기 때문에 사적이고 공적인 의미영역이 중요하다. 특히 ‘간통’을 통해 담론의 양상을 살피는 것은 사랑이라는 개인의 행위가 사회적 영역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성과 사랑의 의미가 권력관계를 통해 양산되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체성을 밝히는데도 유효한 근거가 된다. 더군다나 1950~60년대에는 간통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그것은 ‘숙녀들의 광기’로 명명될 정도였다. 본고는 ‘광기’에 내재된 전복성에 주목할 것이다.

공적영역에서 여성의 탈 근대적 의지는 경제력과 여성 육체에 대한 자각을 통해 나타난다.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계’조직을 통해 생산된 ‘마담뱅크’는 사회의 경제를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을 소유한 여성으로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지향하는 여성군이다. 이는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 경제적 주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남성주체를 위협하는 여성인물로서 배제되어야 할 여성이다. 또 “아푸레 곁” “신생부인족”의 ‘육체 해방’적인 성인식은 남성 가부장제에 귀속되어 통제되어 왔던 여성 육체를 해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더군다나 순결교육이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정결교육으로 실행되었다는 것 또한 당대 육체에 대한 근대적 자각을 나타낸다.

사적영역에서는 여성의 경제력과 쾌락적 성의 허여로 전복성이 드러난다. 전통적 모성과는 변별성을 지향한 현실적 모성에는 이성적 자각을 토대로 한 현실성과 책임감을 내재하고 있다. 현모/요부를 겸비한 양가적 아내는 남성만의 특권이었던 성의 쾌락성을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근대적 지향의지가 드러난다.

『여원 은 여성독자를 지향한 대표적인 여성잡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독자의 마음을 담지한 기존 질서를 담론화하면서, 그것을 저항하는 여성의 폭발적인 내면까지도 수용하며 대중잡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핵심어 : 간통, 섹슈얼리티, 아젠다 세팅, 가부장제, 타자화, 공적영역, 사적영역, 마담뱅크, 아푸레곁, 신생부인 족, 이성적 모성애, 신현모양처

1. 서론

본 논의는 『여원』을 통해 간통의 담론화가 남성 가부장제와 착종되어 여성의 성을 배제하는 방식을 살필 것이다. 그러나 권력으로 여성을 타자화하는 과정 속에는 남성 주체의 균열된 지점이 필연적으로 노출되기 마련이다. 본 논의는 이러한 지점을 포착하여 역으로 여성의 전복의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여원』은 6.25전쟁 이후 국가 재건이 한창이던 1955년 10월 창간되어 70년 4월까지 총 175호가 발간되었다. 이 당시 여성문제를 공론화했던 잡지는 상당했지만¹⁾ 그 중에서도 『여원』은 한국 잡지사에서 현대적 의미를 지닌 첫 여성잡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당시의 잡지는 1930년대의 여성지에서 두드러진 계몽성과 혁명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생활 정보 기능이나 사회 평론 기능이 강화된 특징을 보인다. 『여원』은 창간사²⁾에서 “국가사회의 발달을 위해 지적향상을 꾀하는 문화 교양인”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여성상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다른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원』이 대중을 주도하는 힘은 컸으리라 본다.

푸코는 담론의 생산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관계와 주체성에 주목³⁾하였다. 그는 특히 성담론을 주시하였는데, 성에 대한 사람들의

1) 이 당시에 발간된 여성을 위한 잡지로는 『여성계』(1952년), 『여성』, 『주부생활』(1965년 발간), 『여성동아』(1967년 발간) 등이 있으며, 여성 독자 중심의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이 당시의 잡지는 대부분 경제발전을 위한 소비문화형성과 국가 정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여원』 1955년 10월 창간호에 “해방 십년을 맞이하는 오늘 남녀 동등권은 획득되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여성으로서의 이바지함은 얼마나 컸었는가를 돌이켜 생각, 여성의 문화의식이 얹고서 국가 사회의 민영발달을 바랄 수 없다. 여원을 내놓음은 모든 여성들이 지적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를 부여드리며 새로운 시대사조를 소개 제공코저 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인식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낸다. 그는 성을 개인의 가장 내밀한 욕망에서부터 사랑과 결혼, 가족, 나아가 성적 욕망을 통제하는 사회규범과 제도 및 권력관계 등을 포괄하는 관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⁴⁾ 기든스 또한 조형적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성이 인간관계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힌다.⁵⁾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관계성을 매개로 성립하기 때문에 사적이고 공적인 의미영역이 중요하다. 본고가 『여원』의 성담론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사적이고 공적인 영역을 의미화한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다.

특히 ‘간통’을 통한 성담론에는 사랑이라는 개인의 행위가 사회적 영역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과 사랑의 의미가 권력 관계를 통해 양산되는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간통의 법적 개념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과거에는 결혼한 여자가 배우자 아닌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Adultery)과 결혼한 남자가 배우자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Fornication)을 구별하였으나, 오늘날은 간통의 개념에 이들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시대부터 간통을 금하였고 특히 여성에 대하여 엄격하였으나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간통에 대하여 특별한 처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⁶⁾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여성의 간통만이 처벌된 것으로 판단⁷⁾되나, 현재는

3) Michel Foucault,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4) Michel Foucault, 이규현 역, 『성의 역사 I - 삶의 의지』, 나남출판, 1990.

5) 앤소니 기든스, 배은미 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11~21쪽.

6) 함철훈, 「간음죄 논란에 관한 법적 고찰」 『기독교 신학과 사상』 36호, 2001, 6, 61~7쪽.

7)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간간’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2.

간통행위에 대해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남녀를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쌍벌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통은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이며, 가족생활의 보장을 파괴하여 사회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성과 사랑의 문제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간통죄야말로 여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여성의 입장에서 견지되고 있다.⁸⁾ 그러나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을 지녔다. 이것은 간통이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제도임을 입증한다.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의 경우에는 고소조차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간통’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사랑이 전제되는 경우일지라도 사회가 합의한 부부라는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임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는 가부장제 하에 자손을 낳는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던 풍속이 전해져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었다.⁹⁾ 이는 여성의 성이 남성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늘 사회적 타자로 존재했던 여성에게 남성의 소유욕이 더해져 약자인 여성은 더욱더 가혹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간통의 담론은 여성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유효한 근거가 된다.

243~273쪽. 여담집을 통해 간통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간통을 통해 살펴본 사랑이 사회적으로 통제되어 여전히 여성에게만 범법의 대상으로 규제되고 있음을 살피고 있다.

8) 조경애, 「간통제 폐지, 아직 안된다」 『국회보』 통권 422호, 국회사무처, 2001, 12. 86~90쪽. 여기에서 간통죄는 여성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존재함을 밝히고 있으며 현재까지 간통죄의 존폐는 간통죄 처벌이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논란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9) 폴벤스, 주명철·전수연 역, 『사생활의 역사 1권』, 새물결, 2002, 103쪽.

50년대 전쟁 직후 암울한 사회분위기에서, 미국문화의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 간통을 통한 자유의지를 실현하려는 열망을 일으켰다. 그것은 60년대 경제개발을 통해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이는 당대 여성들의 간통에 대한 관심을 ‘숙녀들의 광기’로 명명¹⁰⁾할 정도로 지대했다. ‘안순애 사건’은 이를 입증시켜준다. 또한 당대(50~60년대)사회에 나타난 이혼의 원인으로 간통이 가장 지배적이었다는 사실¹¹⁾은 이 당시 간통이 남녀 모두의 문제였음을 시사한다.

『여원』 또한 매호마다 「특집」, 「좌담회」, 「공동연구」, 「르뽀」, 「독자수기」, 「여원 상담실」, 「여원재판실」, 「법률상의」, 「나의 호소」 등 다양한 논의를 실어 ‘간통’을 언급하였다. 간통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은 미디어 기능 가운데 하나인 아젠다 세팅(Agenda-setting)기능을 드러낸다. 그

10) 이입하, 「1950년대 여성의 삶과 사회적 담론」, 성균관대, 2003. 이 글에서는 당대의 여성들이 간통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간통 공판일 법정은 여성들로 가득 찼으며 미처 법정에 입장하지 못한 여성들은 창문 위로 올라가서 방청했다고 한다. 이에 당시 법원 행정처 민문기 법정국장장은 “숙녀들이 법정 창문 위로 악을 쓰며 기어오르고 또 기어오르는 추태도 이루 형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문제와 관련된 재판을 방청하는 숙녀들의 광기는 55년 박인수 재판을 통해 재현되고 59년 남편 오영재에 의해 제기된 부인에 대한 이혼 소송 및 간통죄 고소사건 즉 안순애 사건에서 절정을 달해 여성방청객의 행렬이 덕수궁 정문까지 이어져 기마경찰이 출동해 정리할 정도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11) 이형영, 「한국 가정비극의 전형」, 『여원』 56년12월에서 여성 법률상담소의 통계를 통해 한국 가정의 비극의 원형이 바로 ‘축첩과 간통’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68년6월, 「역설적 여권론-자유부인은 늘어나고 있다」에서 여원 편집국취재 기자인 박혜숙은 서울 가정 법원이 발표한 이혼 상황을 보면 남녀간의 부정이 가장 크며 67년 여자의 부정으로 인한 남자측 제소율이 57%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보도를 표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간통이 60년대 이후에 더욱더 확장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50년대 후반에도 여성의 간통은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대했음을 감안할 때 여성의 간통은 남성을 압도했다. 따라서 본고가 그 이면을 살펴볼 때 50~60년대 간통은 사회의 지배적인 현상이었고, 60년대에는 경제 5개년 개발에 의해 공적 영역에서 경제적 주체가 된 남성의 목소리가 커졌고, 여성을 윤리적인 제도로 재단하여 가정 내로 귀속시킴으로써 남성 질서를 확고하게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것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요하며 대중 속의 개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만 하고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이것은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아젠다 세팅 기능은 한 사회 내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는 언론이 공중의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된다.¹²⁾ 이런 미디어의 기능으로 고찰해봤을 때 그 당시 남녀에게 “간통”의 문제를 통한 성과 사랑의 문제는 생각해야 할 커다란 이슈¹³⁾였다.

‘간통’을 통한 성담론 논의는 리타펠스키의 지적¹⁴⁾처럼 남성과 여성의 위계적인 성별체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었음을 전제하는 한에서 가능할 것이다. 50~60년대 남성 주체의 간통은 ‘바람’이라는 낭만적 사랑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여성 주체의 간통은 타락의 징후로 비난받았다는 사실은 성적 욕망이 성별화된 위계구조에 의해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성별화는 여성을 순결한 성녀 혹은 성적으로 타락한 악녀로 나누는 이분법적 도식과도 관련된다.

12) 김선남, 「Agenda-setting Research의 재고찰」 『고향논집』, 1991.11, 190~2쪽.

13) 김진일, 「매스미디어 정보의 사회적 통제와 분배과정에 대한 연구-Knowledge Gao Model을 중심으로」 『코로노스』 21호, 1988.9. 93~4쪽. 여기에서 아젠다 세팅 모델은 수용자들의 사회적 실재에 대한 인식이 실제 환경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제시하는 유사환경 즉 미디어가 설정한 의제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는데 더 영향을 준다.

14) 리타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9, 271쪽. 그녀는 서구 근대사회에서 성적 욕망은 정체성의 근본적인 지표이자 자아 진리의 핵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성별 정치학의 도입은 권력의 구도를 균열시키고 재구성함으로써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근대성과 성의 복합적인 관계를 해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의 성적 욕망을 타자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남성주체의 성립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소거하게 되고 그 결과 여성의 육체는 남성주체의 형편에 따라 자신을 구원하는 존재로도 혹은 자신을 타락시키는 화신으로도 해석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남성에 의해 허구적으로 재구성되는 여성성은 이러한 이분법적 도식을 전제로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위계화된 성별논리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

『여원』이 발행되던 이 시기는 50년대 한국 전쟁을 계기로 들어온 서구문물과 1960년 4.19, 1961년 5.16혁명과 군부정치, 1962년부터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5차 시행과 산업화라는 사회 변동이 급격한 때이다. 그로 인해 사적영역에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겪어야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시기에 발행된 ‘여성을 새롭게 만들어 내기 위한 목적 하에 만들어진 여성잡지’인 『여원』을 살핀다는 것은 당시 ‘성과 사랑’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주도되는가라는 문제를 해명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권력으로 여성을 타자화하는 과정 속에는 남성 주체의 균열된 지점이 필연적으로 노출되기 마련이다. 본 논의는 이러한 지점을 포착하여 역으로 여성의 전복의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2. 공적영역에 나타난 여성의 탈근대적 의지

2.1. ‘계’를 통한 경제참여 - ‘마담뱅크’ 출현

전통 사회에서의 간통은 ‘가부장제의 권위’에 의해 주로 행해졌었다. 그래서 계층이 고정된 과거사회에서는 ‘첩’을 들였고, 그것은 부의 상징이자, 남성의 힘을 표상하는 징표였다. 그러나 『여원』에서는 남성의 외

도가 ‘돈’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근대사회의 중심 가치가 ‘가문’중심에서 ‘돈’으로 변이되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이처럼 ‘돈’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남성의 간통은 20~30년대에도 빈번하게 대두되어 별반 새로울 게 없다. 그런데 『여원』의 간통담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간통 또한 돈과 결부되어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간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녀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리타펠스키가 말한 성별 상징성의 존재와 힘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¹⁵⁾ 따라서 여성의 간통이 돈과 교착되는 지점을 『여원』 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경학 교수는 특집 「외도하는 남성의 주변-바람 피우는 남성의 심리와 이유」에서 남성의 외도가 잦은 것은 경제적 주도권을 쥔 ‘경제적 주체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62년7월, 86~89쪽.) 이어 그는 특집 「자유부인 이후」란에 「유부녀의 위험한 관계」를 논하면서 유부녀의 바람을 부채질하는 원인도 ‘돈’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65년7월, 178~83쪽.) 이를 통해 ‘간통’이 남녀를 불문하고 ‘돈’과 긴밀히 교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간통을 남녀의 문제로 동등하게 담론화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여성의 간통이 남성만큼이나 지대하게 사회문제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대의 중심가치인 ‘돈’이 바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당대 여성이 경제적인 주체로서 성을 행사했다는 점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자였다는 사실은 남성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전복성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1950~60년대만의 섹슈얼리티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당대 남녀 모두가 돈으로 동등하게 성을 행사했다는 점을 부

15) 리타펠스키, 앞의 책, 21쪽.

인할 수 없다면, 남녀의 간통이 달리 평가된 지점을 포착하여 당대 성의 행사방식을 추출해야 한다. 여기에 가부장제의 중심이었던 남성이 여성을 타자화하는 방식이 드러나며, 그런 과정에서 남성주체의 균열지점은 노출된다. 그 지점에 여성의 전복의지가 내재한다.

‘간통’이 남녀를 막론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한 남녀를 평가하는 시선에는 성별 위계화가 형성된다. 경제적 주체자인 남성의 외도는 “나라의 부강을 위해 잠시 머문 휴식”으로(62년7월, 86~9쪽.) 더 나아가 남성에게 부족한 양기를 채워주는(61년9월, 86~9쪽.) 활력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남성의 간통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사해야 하는 긍정적 행위로 합리화된다.

반면 돈을 통해 성을 행사하는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이 사회경제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가치마저도 간통의 비윤리적인 면과 착종하여 가치 폄하된다. 『여성비판 칠장』이라는 특집에서 계모임을 하는 마담들이 젊은 청년과 비정상적인 관계가 현저하다며 비판한다.(58년1월, 89~90쪽.) 따라서 간통하는 여성들은 돈이 두둑해지자 외도하는 주체자로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는 인물로 격하된다.

50년대 전쟁 직후 남성이 부재한 사회에서는 여성이 근대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전쟁은 여성에게 생계담당자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그런 여성은 경제적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적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힘을 돈을 통해 발휘할 수 있었다.

당시 여성 개인이 막대한 ‘돈’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계기는 ‘계’라는 조직을 통해서였다. ‘계’는 여성에게 남녀차별이 지대했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었다. 『우리문화의 세 단층』이란 특집에서 박종화는 계를 하는 여성들은 생존경쟁의 일선에 서서 금융의 실권을 움켜쥐어 보려는 이들로서 ‘새로운 현모양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57년6월, 134

~5쪽.) 이는 “여성의 남성화”¹⁶⁾을 입증하는 것으로 “동서양의 가치가 절충된 새로운 인간상 창출”로 해석한다.(57년6월, 134~5쪽.) 더 나아가 ‘마담뱅크’의 출연은 “남성들이 버는 돈 갖고는 못 살아요”라는 남성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주장하며 역으로 남성의 경제적 독립권을 압도할 위협적 위치로 그려지고 있다.(60년 8월, 174~9쪽.) 계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의 주체적 자각으로 이루어진 남녀 동등한 경제참여라는 점에서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전복성을 내재하고 있다.

50년대 전쟁직후 ‘계’를 통한 여성의 긍정적인 사회참여는 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점차 부정적인 일면으로 담론화된다. 여기에는 그녀들의 사회참여를 ‘간통’과 결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남성주체의 견고한 시선이 담겨있다. 그들은 주로 남성필자로 이뤄져 있고, 여성필자 또한 남성지배체제의 시선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계를 통한 경제참여를 한 한국여성에 대해 여성필자인 손금옥은 “안방을 탈출하려는 안쓰러운 용기”와 “치부에 맞을 들인 물욕에서 벗어난 여자의 끈질기 집착”(66년4월, 216~223쪽.)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주덕송은 『사건 앞에는 여자있다』는 특집에 ‘계’는 경제권에 대한 집념과 남성 지배체제의 경제사회를 부정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켜보려는 욕구의 발로로 정의 내린다.(66년7월, 146~151쪽.) 계를 통한 여성의 경제참여는 여성필자에 의해 여성 스스로의 내적인 결핍에서 비롯된 여성의 물욕적 집착이라는 병적인 징

16) 『여원』에서 ‘여성의 남성화’에 대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남성필자는 부정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양주동 『여성의 남성화』(58년1월, 80~5쪽.)에서도 여성이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면서 남성화되려는 경향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석우선 『바지를 입는 여성이 늘어간다』(58년2월, 258~9쪽.) 여성이 바지를 입고 남성화 되어 남녀동권의 심볼로 볼 수 있는지의 경향을 언급하면서 여성은 여성다워야 아름답다고 주장한다. 이희승 『남성화』에서는 여성이 남성화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60년3월, 114쪽.)

후로 진단됨으로써 여성의 경제력은 배제된다.

그러나 남성 주체에 의해 규명된 부정적인 여성군들의 개념을 살펴 보면 그 여성군들 안에 내재된 저항적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 여성들이 ‘계’를 통해 경제적 주체로서 ‘안방을 탈출’하고자 하는 행위는 30년대 로라처럼 전통사회의 여성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의 주체적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지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실물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남성 지배체제의 경제사회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그 ‘부정’의 행위에는 여성의 저항적 몸짓이 담겨있다. 그들은 남성의 경제적 속박을 벗어나 동등한 경제력으로 평등의 젠더적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는 근대적 여성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평화를 탐색』이라는 특집을 통해 박순천은 가정주부의 계로 인한 탈선이 가정 비극까지 초래하였음을 밝힌다.(57년10월, 67~8쪽.) 더 나아가 김용자는 계로 조직된 사모님 집단을 학교에 자녀를 취학하기 위해 외도를 서슴치 않는 천박한 집단으로 치부한다.(60년3월, 88~92쪽.) 또한 심연섭은 이런 사모님이 사회악의 한 원인이며 “돈과 권력에 쫓아 살아가는 멸시적 집단”임을 누차 강조한다.(65년10월, 216~20쪽.) 이처럼 계조직을 통해 사회참여를 하는 여성군들은 ‘목적물 위해서는 성매매인까지도 자처하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매도됨으로써 배제된다.

이처럼 여성의 계를 통한 사회참여를 남성적 질서체계를 확립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로 재단하여 ‘돈을 사용하는 비주체적인 행위’만을 부각한 채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담론의 경위는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마담뱅크’ 여성군은 기존 전통적 여성성에서 탈주하여 주체성에 입각한 경제적 주체자들이다. 그들은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에 임하려는 새로운 여성상으로 탈근대적 의지를 지닌 여성으로 읽

어낼 수 있다.

계를 통한 여성군에 대한 남성주체의 분열적 시선은 명명된 단어에도 나타난다. 어떤 상황에 대한 명명법은 그것의 성격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속에서 구성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한다.¹⁷⁾ 계모임을 하는 여성들은 계마담, 빠마담, 다방마담이라는 ‘마담족’으로 “근로대가 이상의 수입을 누리는 불로소득에 의한 부정적인 군단”(69년 6월, 192~3쪽.)으로 치부한다. 이런 ‘마담족’은 60년대 들어서 ‘사모님’으로 명명되어 “치맛자락을 날리며 정치나 교육의 부정을 앞장서는 군단”(60년3월, 88~9쪽.)으로 비난받는다. 『기성여성 세대를 고발한다』라는 특집에서 “계를 시작하여 핸드백을 불룩하게 만들며 치맛자락을 펄럭이던 바람을 풍비한 사모님군의 출현”을 사회의 경제체제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고발한다.(60년7월, 98~101쪽.) 계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는 비합리적이며 비합법적인 경제구조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회참여로 치부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배제된다. 남성의 가치라 믿었던 돈을 통해 차세대의 교육까지 관여하는 여성의 주도적인 모습은 남성을 압도하는 위협적인 여성임엔 분명하다. 여성이 자립적으로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회는 묵인된 채 윤리라는 잣대에 매도되어 가정과 국가라는 대의적 명분에 포섭된다.

따라서 계 조직을 통한 여성군은 ‘자유부인’과 더불어 ‘마담족’에서 ‘불로소득 사모님’(68년 6월, 192~3쪽.), ‘애교잃은 또순이 족’(69년6월, 194~5쪽.)이라는 명명어로 천박한 집단에서 멸시적 집단으로 가정과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암적 존재로 자리 매김 된다. 그러나 그들을 명명한 단어를 살펴보면, ‘자유’ ‘불로소득’ ‘애교잃은’ ‘또순이’는 기존의 남성 가부장제에서 규명된 여성성을 벗어난 새로운 여성상이다. 남성주

17) 르네벨렉 오스틴 워렌, 김승철 역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82, 32쪽.

체가 계 조직을 통한 여성군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은 이중적이다. 그녀들은 가정을 파괴하거나 국가 기강을 흔드는 대의적인 명분에 역행해서 부정해야 할 인물군이기에 보다는 남성 가부장제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위협하는 탈근대적 여성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당한 여성군이다. 따라서 ‘마담뱅크’ 여인상의 섹슈얼리티는 전쟁으로 인한 실추된 남성의 경제적 권위에 위기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통과 근대의 고정된 경계를 붕괴하고, 남성의 경제적 위치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공포를 상징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부여된 부정성은 남성 스스로의 치부에 대한 현실적 자각에서 비롯된 남성의 균열된 주체성의 결과이다. ‘마담뱅크’ 여인의 전복적 가치는 근대화의 기획에 포섭되어 ‘문제적 여성’으로 낙인되어 가부장적 질서 안으로 사라진다.

2.2. 남녀 정결교육-육체 해방과 ‘아푸레 낄’ ‘신생부인족’ 탄생

전후 미국문화의 영향에 의한 자유의지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부추겼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자유의지와 교착된 낭만적 사랑의 추구가 남성외도의 원인으로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장경학 교수는 「바람피우는 남성의 심리와 이유」라는 논제에서 한국남성의 외도의 원인으로 봉건적 결혼관, 남성의 경제적 주도권, 음성적으로 활성화된 공창제와接客업의 번성, 외도를 한번은 치러야 할 흥역이라고 인식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62년7월, 86~9쪽.)

그런데 여성의 외도가 ‘팬스’라는 공간과 ‘춤’이라는 행위를 통해 행해지고 있음을 지적한 부분은 주목을 요한다. 여성의 낭만적 사랑의 추구가 서구식의 자유의지와 육체에 대한 해방된 인식을 통해 현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백철은 성적 낭만화를 추구하는 여대생을 ‘갈 방향을 잃은 이브’(57년 8월, 90~5쪽.)라는 의미로 ‘아쁘레게

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여성은 “댄스홀에서 춤을 추고 화려한 차림새로 중년남자와 춤추며 끝나서는 어떻게 되는” 행위를 한다. 따라서 그녀는 현실의 성을 문란하게 하는 장본인이며 정숙치 못한 행동을 지닌 여성의 의미로 “아푸레 곶”이라 불리운다. 이는 “부도덕적이고 지나친 육체 해방파에 속하는 불건전한 사조를 따르는 여성”이라는 부정적인 명명어이다.(59년5월, 288~9쪽.) 따라서 남성필자의 시선에 의한 ‘아푸레 곶’은 간통과 착종되어 당대 전통적인 윤리관을 저해하는 여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그녀의 성의 행사가 ‘육체 해방파’에 속한다는 의미규정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여성의 육체가 오랜 세월동안 남성 가부장제에 귀속되어 통제되어 왔다는 사실¹⁸⁾을 감안할 때, 여성 자신이 육체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지점은 전복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성을 성으로 억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자기발견을 어렵게 했던 당대 이념을 탈주하려는 저항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가치는 간과한 채 당대 사회의 논의들은 ‘아푸레 곶’의 그릇된 성행위만을 표상하여 물질적 쾌락주의자나 미국문화를 걸치레로 치장하여 몸을 가볍게 놀리는 여성으로 담론화한다. 이는 남성주체가 미국에 대한 식민지인의 선망의식과 극도의 자기비하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를 감추고자 만들어낸 우월감의 표상¹⁹⁾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문화의 동경으로 댄스홀에서 춤바람 난 주부의 외도 또한 부정적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윤리와 생리의 대화』라는 좌담회를 통해 감내성은 여성이 서구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윤리의

18) 오생근, 「테카르트, 들뢰즈, 푸코의 ‘육체」, 『사회비평』 제17호, 1997. 95~104쪽.

19)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푸레 곶(전후여성)”표상의 의미 -여성잡지 여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대상으로」, 『여성문학 연구』 제1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77~209쪽.

식을 흔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57년4월, 74쪽.) 더 나아가 『가정평화를 탐하는』 특집을 통해 여성필자 박순전은 양풍댄스나 파티가 여성의 정조관념을 파괴하였는데 이것은 가정 비극을 초래하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57년10월, 67~8쪽.) 여성 필자 최옥자 또한 이러한 자유부인의 행위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모르면서 무비판적으로 미국문화를 수용하는 데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57년10월, 69~71쪽.) 여성의 낭만화는 미국문화를 비판없이 수용했다는 점을 들어 여성성 자체의 문제로 간주하여 야만적 행위로 치부된다. 따라서 여성의 낭만적 사랑은 여성의 즉흥적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행위이다. 여성의 개인적 욕망은 주체 의식이 박약한 미개한 행위이며 사회 기강을 흔들리게 하는 주요인이다. 여성적인 측면인 소비, 쾌락, 개인성이라는 서구 근대적 정신은 일탈되어 주변화되었다. 그러나 중년여성의 성적 쾌락을 명명하는 단어에는 남성주체의 분열적 시선이 있다. 특집 『무엇이 중년여성을 비틀거리게 하는가』(69년2월)에서 중년부인의 탈선을 “권태와 조름기에 젖어있는 무풍지대의 연륜에서 틈새 바람처럼 일어나는 중년여성의 탕기”로 비유하면서 그러한 집단을 ‘지옥으로 뛰어든 부나비’에서 ‘히스테리처럼 동요’하는 병적인 징후로 진단한다. 그러한 자유부인은 “이 땅에서 새로운 모랄에 각성하고 한없이 위축되었던 여권을 끝없이 신장해가는 전위들”(68년 6월, 200~11쪽.)로 의미화 한다. 여성이 쾌락적 성을 행사한다는 것은 여성 자체의 병적 징후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탕기’나 ‘부나비’처럼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도착적 행위로 치부하여 사회구조를 뒤흔드는 악의 행위로 간주한다. 미국문화의 영향에 의해 춤바람 난 여성은 경제적 풍요로 인한 관능적 성과 무질서한 자유의 상상력을 지닌 여성이다. 『자유부인 후기를 이렇게 생각한다 중에서』 정비석은 자기 희생않는 ‘신생부인족’의 탄생을 예고한다. 신생부인족은 50년대 초반의 자유부인²⁰⁾과는 달리 “자기

희생을 저버리면서 허영과 의타에 의존한” 여성으로 “사회적인 자유를 가정에까지 끌어들여 가정과 사회를 혼연일체로 만듦으로써 자기희생을 방지하면서 자유를 맘대로 누리는” 여성이다. 그들은 남성만의 특권인 의도를 “남편과 동등하게 누리면서 가정은 가정대로 적당히 보존해 가는” 약속 바른 부인이다.(68년 6월, 211쪽.) 『역설적 여권론- 자유부인은 늘어나고 있다』에서는 여성들의 바람이 종전 후와는 다른 “자신의 분명한 욕구가 바람의 원인”(68년6월, 200~11쪽)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성주체에 의해 규명된 ‘한없이 위축되었던 여권을 끝없이 신장해 가는 전위들’이라는 말 속에서 남성을 향한 여성의 위협적 태도와 그들을 거세하고자 하는 남성 주체의 욕망이 착종된 역설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경제발전을 향해 질주하는 경제개발의 근대적 기획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은 스스로도 사회적 자아를 억압하여 낭만화된 감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인 욕망보다는 개인적인 욕망을 중시하여 모(母)로서의 여성보다는 여성 그 자체로서의 모(母)로 살겠다는 근대적 자각을 드러내는 여성상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여성은 간혀진 육체에서도 해방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지닌 여성으로서 남성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여원』담론을 살펴볼 때 이 당시 여성의 순결은 생명과 비교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순결은 당대에도 당연히 신비화되어 남성에게 찬미되고 있었다. 박두진은 여성의 처녀성은 남성에게 “고귀하며 영원한 여성미”로 비친다.(56년 5월, 54~7쪽.)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처녀성 상실은

20) 정비석은 “50년대 초반의 자유부인은 가정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봉건도덕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시대에는 가정주부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봉건의 여성인 가정을 버리고 몸소 자유를 누리기 위해 봉건의 여성인 가정을 버리고 몸소 사회로 뛰어나왔다”고 보고 있다. 『여원』 68년6월, 201쪽.

여성에게 가장 큰 핸디캡이며(57년9월, 84~5쪽), 순결을 잃은 여성은 첩으로 살 수 밖에 없음을(60년10월, 162~95쪽.) 강조한다. 이러한 여성의 성의 신비화는 여성담론자조차도 강조하고 있다. 박화성은 「성의 남녀동등권에 대해서」라는 논지에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개방될 수 없음을 강조(64년10월, 118~25쪽.)한다. 안수길 또한 여성의 고귀함은 ‘흰 백합같은 순결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주장한다.(64년10월, 118~25쪽.) 여성필자는 자신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순결이 누구를 위한 고귀함인지에 대한 통찰적인 고찰도 없이 다만 절대적 진리이며 숙명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 가부장제에 편승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성의 신비화는 바로 남성의 권력행사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여 지배하고자 하는 남성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처녀성의 여섯가지 신비」라는 특집(59년1월, 133~6쪽.)에서 안동민은 “처녀성은 남자의 소유권의 권력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녀성이 파괴되었을 때 의학적으로 식별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여성의 성이 물질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여성의 육체가 여전히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남성 스스로를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로 규정하여 윤리적인 육체를 강조해왔다. 그리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는 육체의 감각적 쾌락을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했다. 육체의 감각적 쾌락을 열등한 것으로 치부한 만큼 그것은 남성의 특권 안에서는 남성의 전유물처럼 남용되었다. 그러므로 여성이 육체를 통해 쾌락을 느낀다는 것은 최악이었다. 이 시기 또한 남성의 육체적 쾌락이 사회적인 암묵을 통해 인정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매매인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사건 속의 여성」이라는 논지에서 박인수 사건이나 춘천호 사건에 대해 권순영 변호사는 화류계 여

인의 몰지각한 행동이 몰고 온 참사라며 성매매인을 폄하하여 “법은 정숙한 여자만을 보호한다”(66년7월, 152~7쪽.)라고 판결한다. 이 사건을 통해 성매매인은 남성의 쾌락적 성에 유린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으로 남성의 육체적 쾌락은 사회가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에 반하는 육체 해방을 부르짖는 ‘아푸레곶’이나 ‘신생부인족’의 쾌락적 성의 행사는 분명 여성의 전통적 성의식을 탈주하고자 하는 근대적 욕망을 내재하고 있다. 이 당시의 정조관념이나 성의 교육이 남녀 동등하게 대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들의 도전적 행위가 사회에 위협적 행위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원의 ‘정조’』(답론21)을 살펴볼 때 이 당시 순결을 지키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권장되는 이상적인 도덕윤리였다.(56년4월, 41~50쪽.) 남성의 순결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청소년에게도 간통죄에 쌍벌을 가하는 당시의 성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결교육을 시행한다. 물론 성의 순결교육이 여성을 향하고는 있지만,(56년11월, 57~9쪽.) 남성에게도 정조관념을 부여하여 교육을 통해 육체를 통제하고자 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푸레곶’이나 ‘신생부인족’의 육체에 대한 근대적 자각이 사회구조의 균열을 일으켰고, 그러한 균열이 성의 평등화라는 근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

21) 정조문제는 『여원』 56년5월 안인희의 「남자의 정조」, 56년11월 원홍균의 「정결교육은 남녀공학에게」, 57년1월 김래성의 「정조관념의 비극」, 58년11월 김기두의 「여성과 정조」, 59년 11월 김기환의 「처녀성과 부끄러움의 심리」, 59년 11월 정충량의 「남편이 외도하면 아내도 바람난다」, 64년8월 「정조관념의 변천」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남성필자에 의해 다각적인 시선에서 정조의 문제를 논하고 있으며 남성적 시선에 비취진 정조관으로 가부장적 시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조관을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통적 시선을 벗어나고 있음을 드러낸다.

문이다. 여성만의 문제여서 여성의 삶을 구속하고 통제했던 ‘순결’ 즉 육체의 통제가 남성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점은 여성의 육체가 남성의 소유라는 주종관계를 벗어나 남녀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성을 통한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대한 자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3. 사적영역에 나타난 여성의 탈근대적 의지

3.1. 현실적 모성 - ‘이성적 모성애’ ‘신현모’

남성의 간통은 경제발전을 위해 “한번은 치러야 할 홍역”(62년7월, 86~9쪽)으로 낭만화된다. 그들의 간통행위는 국가담론을 끌어들이며 개인적 욕망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한다. 남성가부장제는 공적영역 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아내조차 자신의 기획 속에 포섭한다. 여성성보다는 모성성을 좀 더 긍정적인 가치로 부여함으로써 ‘현모’담론을 조성한다. 여기서의 ‘현모’는 가부장적 전통의식을 보다 많이 답습한, 남성들이 보기에 긍정적인 모성성이다. 이 당시가 요구하던 모성상은 자식만을 위하던 전통적 의미와는 달리 돌아온 탕자인 남편도 자식처럼 용서하고 오히려 감싸 안아주는 것이다.

여성 담론자인 송정숙은 「바람 피우는 일에 대하여」라는 논제에서 여성 자체가 지배당하고 의존하는 본능이 있으니 바람난 낭만적인 성향의 남성을 지배력과 포용력을 통해 부드러운 정서와 모성으로 안아주길 바란다.(68년1월)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진정한 현모는 남성의 낭만성으로 인한 외도를 여성 스스로가 알아서 숭고하고 자애로움을 지닌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여성이며, 이것이 바로 위대한 내조적 길임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²²⁾ (57년 10월, 80~9쪽.) 『불혹 중년의 여성』에서 이명운은 『동물원 세계 같다』는 논제로 “탐욕의 광장에서 중심을 잃어버린 저울대 같은” (61년1월, 23~33쪽.) 남성을 신뢰와 순종과 내조의 미덕으로 감싸안아 주길 바란다. 이러한 현모는 ‘아크메’(희랍어로 인생절정이라는 뜻)²³⁾로 명명되어 찬양된다. 남성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밝히고, 여성들이 그런 면들을 채워서 자신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적극적인 협조자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의 젠더적 위치가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평등적 위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근대적 부부관이다.

이러한 여성은 낭만적 사랑을 추구한 이탈적 여성과 대척점에서 그 아름다움이 더욱더 찬양된다. 여성필자 임옥인은 『불혹 중년의 여성에게』라는 논제로 “여성의 낭만적 사랑은 여성의 히스테리 증상이며 가정의 여인인 모성애를 발휘하는 여성만이 이름답다”는 것을 강조한다. (61년1월, 210~3쪽.) 여성필자 스스로도 여성의 주체적인 자각에 의한 여성 자신으로서의 삶보다는 남성이 보기에 아름다운 즉 타자성을 내재한 길들여진 여성의 삶을 찬미한다.

더 나아가 더 이상 아내에게 성적 쾌락을 느낄 수 없어 끝없이 낭만적 사랑을 갈망하는 남편을 둔 여성에게는 현실적인 모성성까지 강요²⁴⁾

22) 『여원』에서 남성의 외도를 모성적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받아들이 것을 당부한 담론은 상당 수 있다. 정비석, 『여성의 생활 각서-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여원』 58년 3월), 김남중, 『주부는 주부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여원』 59년4월), 함석현, 『흘러가는 마음에서』(『여원』 59년7월)

23) 『불혹 중년의 여성』(『여원』 61년1월) 210~233쪽. 김은우 『아크메의 매력』에서 ‘아크메’는 인생절정이란 뜻을 지닌 희랍어로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국화같은 원숙한 여성으로서의 ‘중년의 미’를 최고의 가치로 부여한다. 임옥인은 『인생의 난숙기-중년여성의 정의와 특징』, 감용호, 『중년여성의 형태』, 이명운 『동물원 세계 같다-중년여성의 남성관』으로 이뤄져있다.

24) 이는 『여원』에서 재차 강조하는 여성이 갖춰야할 교양미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

한다. 『아내의 힘을 재평가한다』는 글에서 박영준은 낭만적인 남편은 현대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애정없는 부부가 가정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현실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현모임을 밝히고 있다.(58년3월, 66~9쪽.) 남편에 대한 애정을 이성적으로 관리하며 자녀 교육까지도 책임지는 어머니의 현명함을 강조한다. 특집 『가정평화를 탐색하는 - 가정교육에 직결된다』에서 이 시대의 모성애는 “이성적인 모성애”(57년10월, 88~9쪽)임을 강조한다. ‘모성애’라는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가족사랑이 이성적인 합리성으로 규제하는 사랑으로 변이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녀교육에도 직결되는데, 『새로운 부모의 위치와 자녀의 윤리』에서 임경애는 『현대 어머니론』(60년5월, 68~73쪽.)를 통해 ‘새 시대의 현모양처’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지배하는 어머니는 경제권을 가졌다고 해서 가정을 맹목적으로 지배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시대의 현모는 “지식을 탐낼 줄 알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려고 노력한다. 즉 이지적인 것이다. 또 그들은 사리를 잘 비판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려고 하는 여성”이다. 이는 당시의 모성애가 감정의 영역에서만 역할지위였던 전통적 여성성을 벗어나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현실성과 책임감’을 지닌 여성성이라는 근대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여성성의 의미로 재 매김 될 수 있다. 이는 여성 중심의 핵가족화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남성적 지

로 『여원』에서는 1967년부터 ‘살림 잘하는 주부상’을 매 해 수상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상에는 경제적 개념이 있는 어머니가 수상된 바가 많고, 가계부를 부록으로 주어 여성에게 현실적인 경제의식을 부여하고 있다. 『여원』 68년 6월 『청와대로 초청받은 살림잘하는 주부들에서』는 가정주부들 각자는 내핍과 근면으로 국민 생활의 바탕부터 건설의 기운을 진작해야 한다는 요지로 여성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계’랄지 ‘직업’을 통해 경제에 참여하기보다는 남편이 벌어들인 돈을 규모있게 사용(즉 효율적인 지출로 소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함으로써 내실을 다지는 여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배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가정의 실제적 주체자로서의 어머니의 모습이다. ‘신현모’는 ‘현실성과 책임감’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대적 여성상이다. 이는 핵가족의 사적 영역에서 근대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전복성을 읽어낼 수 있다.

3.2. 여성의 육체적 쾌락-현모/요부를 겸비한 양가적 아내, ‘신양처’

50~60년대 남성의 성적 욕망은 ‘나비족’이라는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낭만적 용어로 미화되어 (69년7월, 178~9쪽.) 흘러 넘치는 남성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간주한다. 오히려 그러한 남성의 쾌락적 욕망이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러한 남성의 성적 쾌락을 가정주부인 여성이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면 남성은 외도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여성의 탓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사적영역의 성적 문제에 있어 아내의 역할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먼저 남편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미를 가꿀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정비석은 『여성의 생활각서』에 성적 요부성의 아내를 요구하며 화장에 각별한 관심을 요구한다.(58년3월, 143쪽.) 여성필자 또한 남성 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결혼 일년생의 생활보고』라는 앙케트를 통해 여자 배우 강숙경이라는 여성 답론자는 남성의 부도 즉 바람은 남편이 주부에 대한 매력을 상실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57년10월, 176쪽.) 더 나아가 남편의 외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바람의 책임이 여성에게 돌려지는 현실 속에서 여성은 절대 아름답음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한다.(60년10월, 162~96쪽.) 이처럼 현실은 분명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성을 강요한 잘못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시선을 통한 개혁 의지를 지향하기 보다는 기존의 현실에 부응하여 탐승하기를 원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새 세대를 위한 일곱가지 문답」에서도 간통을 하는 남성 보다는 외도하는 남편을 둔 여성을 비판대상으로 삼고 오히려 책임의 소재를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외형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지성의 아름다움”까지 강조한다.(57년10월, 57쪽.) 그러한 지성은 애정에 있어 정신적인 방향보다는 육체적인 방향이 중시되는 현 시점에서, 육체적인 애정을 “타락적이며 발전적인 면을 구별할 수 있는 현명”을 가리킨다.(57년7월, 176~9쪽.) 따라서 아내는 남성의 성적 쾌락을 위해 요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현명한 여성이 될 수 있다.

「아내여 남편을 아는가」에서 석우선은 남편의 외도가 여성의 성적인 면의 결핍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하며 여성은 저녁에 요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58년2월, 116면.) 이에 정비석은 부부간의 성행위에 있어 아내는 밤에 남편을 적극적으로 유혹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59년10월, 100~5쪽.) 이는 종합기사인 「애정의 공백지대」라는 논제를 통해서도 애정의 공백은 여성에서 비롯되며 남성을 위해 적극적인 성행위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60년9월, 186~91쪽.) 안수길 또한 “아내란 낮에는 귀부인이요 밤에는 요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여성은 낮에는 가사활동을 밤에는 남편을 위한 성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64년10월, 118쪽.)

이에 여성필자인 박화성은 특집 「결혼하면 남편은 어떻게 변하는가」에서 남성은 변하지 않는데 “남편의 사랑을 잃어가는 아내가 있다면 그것은 아내의 책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남편의 외도가 전적으로 여성의 수동적 성 행위에 있음을 강조한다.(61년10월, 78~9쪽.) 남성필자가 여성의 쾌락적 욕망을 현상 그 자체의 표상적 지적을 통해 비하하는 상징어로 여성의 성적 가치를 부정화시켰다면, 여성필자는 남성의 기존논리를 인정하면서 남성의 시선을 빌려 여성의 입으로 여성을 남성의 성적 노리개로 노예화하는데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여성임

에도 불구하고 여성자체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남성적인 시선으로 여성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것은 여성의 성적 쾌락에서 비롯된 육체의 자유로움마저 이성적으로 재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임경애는 『현대 어머니론』(60년5월, 68~73쪽.)를 통해 새 시대의 ‘양치’상을 제시한다. “새 시대의 총명한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는 표시를 자연스럽고도 과감하게 할 줄 안다”라고 언급하면서 여성의 개인적인 욕망 또한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동적 아내를 ‘신양치’로 제시한다. 성을 행사하는 주체자로서 ‘요부’에는 남성 가부장제에 의해 통제된 육체에 대한 규제로부터 탈주하려는 여성의 전복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그것이 비록 남성을 위한 성적 도구화라 할지라도 여성이 쾌락적 성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성에 있어 탈근대적 자각이다.

4. 결론

1953년 간통죄는 여성의 권위를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 쌍벌죄로 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통을 통해 담론의 흐름을 살펴보면 여성의 성과 사랑은 미국문화의 유입과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함께 끊임없이 규제되고 있었으며 타자화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을 타자화하는 남성주체의 의식에는 미세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거기에는 여성의 탈근대적 의지가 담겨있다.

공적영역에서 여성의 탈 근대적 의지는 경제력과 여성 육체에 대한 자각을 통해 드러난다.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계’조직을 통해 생산된 ‘마담뱅크’는 사회의 경제를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을 소유한 여성으로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지향하는 여성군이다.

이는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 경제적 주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남성주체를 위협하는 여성인물로서 배제되어야 할 여성이다. 또 “아푸레 곁” “신생 부인족”의 ‘육체 해방’적인 성의식은 남성 가부장제에 귀속되어 통제되어 왔던 여성 육체를 해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더군다나 순결교육이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정결교육으로 실행되었다는 것 또한 당대 육체에 대한 근대적 자각을 나타낸다.

사적영역에서는 여성의 경제력과 쾌락적 성의 허여로 전복성이 드러난다. 전통적 모성과는 변별성을 지향한 현실적 모성에는 이성적 자각에 의한 현실성과 책임감을 내재하고 있다. 현모/요부를 겸비한 양가적 아내는 남성만의 특권이었던 성의 쾌락성을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근대적 지향의지가 드러난다.

『여원』은 교양있는 여성을 강조한다. 그런 교양은 남성 지배이념을 담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념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는 여성은 비난의 대상으로 표상화 된다. 그래서 여성의 전복성은 간과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비난의 지점에 자연스레 노출된 남성주체의 균열지점에는 여성의 전복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는 보드리야의 말을 상기시킨다. 대중매체는 성해방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 장치로 이용하는 체계의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중에 수용한다.²⁵⁾ 『여원』 또한 남성독자의 마음을 담지한 기존 질서를 담론화하면서 그것을 저항하는 여성의 폭발적인 내면까지도 수용하며 대중잡지로 거듭날 수 있었다.

25) 장보드리야르,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219쪽.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여원』 55년 10월-70년4월

2. 단행본

리타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9.

르네웰렉 오스틴 위렌, 김승철 역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82.

Michel Foucault,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Michel Foucault, 이규현 역, 『성의 역사 I-삶의 의지』, 나남출판, 1990.

미셸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앤소니 기든스, 배은미 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장보드리야르,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제프리 위스, 서동진·채규형 역, 『섹슈얼리티-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1994.

폴벤느, 주명철·전수연 역, 『사생활의 역사 1권』, 새물결, 2002.

3. 논문

김선남, 「Agenda-setting Research의 재고찰」, 『고향논집』,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1.11. 189~213쪽.

김진일, 「매스미디어 정보의 사회적 통제와 분배과정에 대한 연구-Knowledge Gao Model을 중심으로」, 『코로노스 21』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신문방송학과, 1988.9, 89~95쪽.

오생근, 「데카르트, 들뢰즈, 푸코의 '육체」, 『사회비평』 제17호, 나남, 1997. 95~121쪽.

조경애, 「간통제 폐지, 아직 안된다」, 『국회보』 통권 422호, 국회사무처, 2001. 12. 86~90쪽.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성, 사랑, 권력-18 19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12. 243~273쪽.

이임하, 『1950년대 여성의 삶과 사회적 담론』, 성균관대박사, 2003.

함철훈, 「간음죄 논란에 관한 법적 고찰」, 『카톨릭 신학과 사상』 36, 카톨릭대학교, 2001.6. 55~77쪽.

Abstract

A Review of 1950~60's woman the Sexuality

- The discourse of Adultery in *Yeowon* -

Lim, Eun-hee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in what ways women's sex and love were controlled and restricted through the discourse of adultery in *Yeowon*, hoping to understand the discourse methods in *Yeowon* that played a leading role in guiding women in those days.

Judging from "adultery" discoursed upon in *Yeowon*, it's apparent that the othering ways of women in both sex and love were woven into the patriarchal system of the society and managed through capital in the economic aspects and reasonable rationalization in the epistemological aspects. They also turned out to dominate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thoroughly. In the economic aspects, othering was manifested in the form of women's alienation from economic activities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reinforcement of women's maternity in the private sector. Meanwhile, in the epistemological aspects, othering happened in the form of mystification of women's chastity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castration of women's sensual desires in the private sector.

Despite the fact that the act of adultery was derived from a wrongful act by a male character, it's all left to women to overcome it. The writers leading such discourse shared the same kind of viewpoints regardless man or woman. While the male writers focused on disclosing the reality in the discourse, the female

counterparts regarded such a negative situation as a female problem, treated it as a female issue, and thus dominantly took a male point of view, which proves that the female writers did have power effects as well by taking the perspective of discourse generators. Unlike other magazines, *Yeowon* cited "beauty of culture"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women's othering. The beauty of culture categorized intellectual beauty, subjectivity(ethical subjects), realistic maternity, and ethical purity and defined a female image of the contemporary times. Suggested in *Yeowon*, beauty of culture eventually worked to introduce women into the patriarchal logic of men and manifested itself in the aesthetical consciousness of marginalizing women, controlling women's emotional freedom and physical liberation through supervision and regulation.

Key words : adultery, sexuality, agenda setting, patriarchal system, othering,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new womans

■ 본 논문은 10월 30일 투고되어 11월 24일에 심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게재가 확정되었음.